

르노코리아, 타이어·정비 등 차량 보유 전 과정 만족도 높인다

그랑 콜레오스·필랑트 경쟁력 강화
신차용 타이어 개발 등 완성도 높여
CMA 플랫폼 기반 정비 접근성 개선

르노코리아가 신차의 주행 성능뿐 아니라 차량 구매 이후의 유지관리 경험까지 개선하며 상품 경쟁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를 중심으로 정비 편의성을 높이고 소모품 비용을 낮추는 한편, 신차용(OE) 타이어 개발 단계부터 승차감과 핸들링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고객이 차량을 보유하는 전 과정에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 필랑트, 준대형 크로스오버의 새로운 선택지… 타이어 개발 최대 2년

르노코리아의 준대형 크로스오버 '필랑트'가 효율성과 승차감을 앞세워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넥센타이어가 OE(신차용) 타이어 개발 단계에서 주행 성능을 세밀하게 다듬으며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다.

경기도 화성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서비스센터까지 약 300km를 필랑트로 주행한 결과, 가장 눈에 띈 것은 연료 효율이었다. 250마력 하이브리드 E-T



지난 12일 화성 KATRI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주행평가팀 연구동에서 르노코리아의 필랑트 차량 타이어를 점검하고 있다.

ech 파워트레인인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섞인 실주행에서 20.4km/L의 연비를 기록했다. 공인 복합연비 15.1km/L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실제 도로에서는 차체 크기에서 오는 존재감이 분명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해 장거리 주행에서 부담을 덜었다.

승차감과 정숙성 역시 강점이다. 전 트림에 적용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과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노면 소음과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냈다. 3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openR 파노라마 스크린'과 LLM 기반 AI 음성 어시스턴트 '에이닷 오토', ChatGPT 기

반 차량 매뉴얼 서비스 '팁스' 등 편의사양도 갖췄다.

차량의 주행 감각을 완성하는데 타이어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2일 화성 KATRI에서 만난 넥센타이어 주행평가팀은 필랑트 OE 타이어의 R&H(Ride & Handling) 성능을 점검하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최대 180km/h까지 속도를 높이며 조향 반응과 차체 거동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과 슬러림 주행에서 롤링, 복원력, 전후륜 그립 등을 평가했다.

계측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평가와 전문 평가원의 감성 평가를 병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넥센타이어는 기본적인 완성도



지난 13일 르노코리아 남광주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사가 차량 관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를 확보한 뒤에도 소음·진동, 제동, 핸들링과 같은 요소의 미세한 차이를 줄이는데 1년 반 이상을 투입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OE 타이어는 소음·진동, 제동, 핸들링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며 "필랑트 타이어는 연비와 승차감, 핸들링의 균형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비 편의성 높이고 유지비 부담 낮춰

르노코리아의 변화는 정비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3일 방문한 남광주서비스센터에서 필랑트의 에어컨 필터 교체 작업을 살펴본 결과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쪽 나사 2개만 풀면 필터를 꺼낼 수 있

는 구조였다. 센터 관계자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가 직접 교체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는 볼보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정비 접근성을 높여 작업 시간을 줄이고 공임 부담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남광주서비스센터에 따르면 동일한 엔진오일 기준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의 엔진오일·필터 교환 비용은 르노 아르카나보다 약 30% 저렴하다.

2022년 9월 문을 연 남광주서비스센터는 호남·제주권 12개 신차 판매 거점을 지원하는 허브 정비 사업소다. 16명의 프론트·정비 인력이 근무하며 리프트 8대와 판금·도색 설비를 갖췄다. 정비진 평균 경력은 20년 이상이며 코텍(CoTech)과 고전압 전기차 정비 자격 보유자도 근무한다.

르노코리아는 신차의 성능뿐 아니라 타이어 개발과 정비 서비스까지 고객 경험의 범주로 묶고 있다. 가격과 성능을 넘어 유지비와 정비 편의성이 자동차 구매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 같은 변화가 향후 판매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화성·광주=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삼성·SK, 美 중심 투자… 글로벌 입지 '흔들'

美, 반도체 기업 현지생산 압박
中 업체, 메모리 시장 몸집 키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역별 매출 구조는 엇갈렸지만 신규 투자는 양사 모두 미국에 쏠려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삼성전자는 중국이 최대 시장이지만 공장은 나란히 미국에 짓는다.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 내 증설이 제한된 데다 미국 정부가 현지 생산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양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미국 매출은 84조5648억원으로 전체 매출 131조8950억원의 64.1%를 차지했다. 단일 고객 매출은 17조6087억원과 17조1874억원으로 두 곳에서 34조원을 넘겼다.

반면 삼성전자는 중국 매출이 88조6004억원으로 미국(70조6466억원)을 앞섰다. 전년 동기 대비 207.7% 늘어난 규모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삼성전자

는 지역별 매출을 부문별로 구분하지 않아 반도체와 완제품이 함께 잡힌다.

이처럼 양사의 매출 구조는 다르지만 신규 투자는 미국에 쏠려 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작공식을 연다. 38억7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를 투입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와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다. 가동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앞서 전력과 용수, 인력 여건이 갖춰지면 메모리 생산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앞세운다. 텍사스주 테일러 1공장을 연내 가동하고 이후 2개소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동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공정과 장비, 수율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왔다. 2공장은 연말 공사 착수를 준비 중이며 2030년 양산이 목표다.

중국 매출이 늘었지만 현지 생산시설

을 증설하거나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는 규제가 걸림돌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다렌 공장을 검증된최종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하는 규칙을 발표했고 12월 31일 발효됐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가 제한되는 사이 현지 업체는 몸집을 키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YMTC는 2분기 낸드 출하량 점유율 14%를 기록해 키옥시아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300단 이상 제품 개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향해 현지 생산 확대 요구도 이어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뉴욕주 클레이타운에서 열린 마이크로 공장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경쟁사들도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아이폰18 가격인상 예고… 부품업체 셈법 복잡

LG이노텍·LGD, 사업 다각화 속도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아이폰18 시리즈의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애플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국내 부품사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8 프로 256GB 모델의 부품원가(BOM)가 전작보다 약 3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원인은 메모리 가격이다. 아이폰 프로 256GB 모델의 전체 부품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 약 10%에서 올해 3분기 약 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인상 기류는 국내 부품사에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는 애플로 추정되는 단일 고객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는 구조다.

다만 아이폰18의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 부품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따른다. 애플이

가격 인상 폭을 낮추기 위해 마진을 일부 포기하면서 출하량을 방어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올해 신제품이 프로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내 부품사는 향후 아이폰 판매량 변화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부가제품과 신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LG이노텍은 애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F-C-BGA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반 사업을 키우는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 등 퍼지컬 AI 기기에 적용되는 비전센싱 모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 영역을 모바일에서 IT와 차량용으로 넓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모니터·노트북·태블릿용 패널 매출 비중은 36.1%, 차량용 패널은 10.4%를 기록했다. 회사는 저전력·슬림화 등 차세대 OLED 기술 개발과 함께 게이밍 모니터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매디슨 황 엔비디아 이사, LG 로보틱스 거점 찾는다

〈젠슨 황 장녀〉

양사 실무진 회동… 사업 협력 가속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사진)가 LG전자의 로보틱스 핵심 거점을 찾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 황 CEO가 전략적 사업 협력에 뜻을 모은 지 닷새 만에 실무진 간 만남이 이어지면서 양사의 퍼지컬 인공지능(AI)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황 수석 이사는 오



는 18일 서울 서초구 LG전자 양재 연구개발(R&D) 캠퍼스에 구축 중인 '데이터 팩토리'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LG전자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구 회장과 젠슨 황 CEO의 회동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 회장은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젠슨 황 CEO와 만나 퍼지컬 AI를 비롯한 전략적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황 수석 이사는 2020년 엔비디아에 합류한 이후 옴니버스와 로보틱스 등 퍼지컬 AI 관련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며 관련 생태계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LG전자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분야 협력도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삼성 “‘콜 오브 듀티’ 신작, 생생하게 즐기세요”

모니터·스피커 등 게이밍 제품 최적화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기 게임 '콜 오브 듀티' 신작에 자사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며 게이밍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1인칭 슈팅 게임(FPS) 신작 '콜 오브 듀티 : 모던 워페어 4'의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신작 개발 초기부터 액티비

전 블리자드와 협력해 TV와 모니터, 사운드바, Wi-Fi 스피커 등 주요 게이밍 제품을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했다. 특히 양사는 신작에 32:9 '슈퍼 울트라와이드' 화면 비율을 구현했다. 삼성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9' 사용자는 넓은 화면을 활용해 전장을 보다 폭넓게 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HDR10+ 게이밍' 기술도 적용됐다. 어두운 실내 전투부터 밝은 야외 전장까지 색감과 명암을 정교하게 표현해 게임의 몰입감을 높인다.

/차현정 기자